

# 재계, 추석연휴 경영구상 전망... AI·반도체 등 미래사업 집중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반도체 사업 점검... 해외경영 가능성

##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전기차 등 미래 모빌리티 사업 구상

## 최태원 SK그룹 회장

AI·반도체 중심 그룹 성장동력 점검

## 구광모 LG그룹 회장

그룹 AX 등 미래 사업 경쟁력 강화

재계 총수들이 올해 추석 연휴를 맞아 휴식과 함께 하반기 경영 구상에 집중할 전망이다. 인공지능(AI)과 반도체, 자동차, 배터리 등 미래 성장사업을 둘러싼 경쟁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하반기 사업 현안을 점검하고 내년 경영전략을 가다듬는 시간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22일 재계에 따르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등 주요 그룹 총수들의 추석 연휴 구체적인 일정은 아직 외부에 공개되지 않았다. 다만 각 그룹이 올해 하반기 핵심 사업을 본격화하고 있는 만큼 총수들도 연휴 기간 주요 현안을 점검할 것으로 관측된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반도체 사업 경쟁력 강화와 인공지능(AI) 관련 사업

확대가 주요 경영 현안이다. 삼성전자는 고대역폭메모리(HBM)를 비롯한 AI반도체 경쟁력 회복과 차세대 반도체 기술 확보에 속도를 내고 있어 이 회장이 글로벌 고객사 및 사업 현황을 점검할 것으로 전망된다. 해외 현장 경영에 나설 경우 글로벌 네트워크를 활용한 협력 논의도 이어질 수 있다.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은 전기차와 하이브리드차를 비롯한 친환경차 대응

과 함께 자율주행·로보틱스·수소 등 미래 모빌리티 사업 구상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현대차그룹이 퍼지컬 AI와 자율주행 기술 확보에 속도를 내고 있는 만큼 하반기 연구개발과 양산 전략을 점검하고 글로벌 시장 대응책을 가다듬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 현대차는 올 하반기 제네시스 브랜드의 첫 하이브리드 모델인 GV80 하이브리드와 초대형 플래그십 전동화 SUV GV90, 글로벌 시장 주력 모델인 투싼 신형 등의 출시도 앞두고 있다.

최태원 SK 회장은 AI와 반도체를 중심으로 SK그룹의 미래 성장동력 점검에 나선다. SK하이닉스의 HBM 등 AI 메모리 경쟁력 강화와 함께 그룹 차원의 AI 사업 확대, 에너지 사업 재편 등이 주요 현안으로 꼽힌다. 이에 따라 최 회장은 추석 연휴를 활용해 하반기 투자와 사업 포트폴

리오에 대한 경영 구상을 구체화할 것으로 보인다.

구광모 LG그룹 회장은 그룹 전반의 인공지능 전환(AI)과 미래 사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사업 계획을 구상할 방침이다. LG전자의 AI·가전 및 전장 사업과 LG에너지솔루션의 배터리 경쟁력 강화 등 주요 사업의 수익성 개선과 성장 전략이 핵심 과제다.

재계 관계자는 “총수들에게 명절은 단순한 휴식 기간이라기보다 그동안 시간을 내기 어려웠던 사업 현안을 점검하고 중장기 전략을 구상할 수 있는 시간”이라며 “하반기 경영환경이 녹록지 않은 만큼 주요 총수들도 미래 성장사업과 투자 방향을 놓고 고민하는 시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metro

## LG전자·엔솔, 엔비디아 AI 팩토리 생태계 합류

### LG전자 CDU·LG엔솔 BESS

‘DSX 레디’ 제품·파트너 선정

LG전자와 LG에너지솔루션이 냉각과 전력 솔루션을 앞세워 엔비디아의 차세대 인공지능(AI) 팩토리 생태계에 합류했다. AI 서버의 고집적화로 데이터센터의 발열과 전력 관리 중요성이 커지는 가운데 양사는 관련 솔루션을 기반으로 글로벌 AI 데이터센터 시장 공략을 확대한다는 전략이다.

LG전자와 LG에너지솔루션은 자사의 대용량 냉각수 분배장치(CDU)와 배터리 에너지저장장치(BESS)가 엔비디아의 ‘DSX 레디(DSX Ready)’ 제품 및 파트너로 각각 선정됐다고 22일 밝혔다.

DSX 레디는 엔비디아의 ‘DSX AI 팩토리 플랫폼’에 적용되는 컴퓨팅·네트워크·전력·냉각 등 관련 요건을 충족한 제품과 솔루션을 선정하는 프로그램이다. AI

팩토리는 데이터 수집부터 AI 모델의 학습과 추론까지 전 과정을 처리하는 데이터센터를 의미한다.

LG전자는 2.5MW(메가와트)급 CDU로 엔비디아의 DSX 레디 승인을 획득했다. CDU는 AI 서버에서 발생하는 열을 식히기 위해 냉각수를 순환시키는 액체냉각 핵심 설비다. LG전자의 2.5MW급 CDU는 약 120kW급 최신 AI 서버 랙 20개를 하나의 그룹으로 구성해 냉각할 수 있는 수준이다.

LG전자는 지난 7월 600kW급에 이어 이달 1MW급 CDU에 대해서도 엔비디아 규격 승인을 받았다. 이번 2.5MW급까지 제품군을 확대하면서 소·중·대용량 CDU 라인업을 확보했다. 향후 4MW급 대용량 CDU까지 엔비디아 규격 승인을 순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LG에너지솔루션은 국내 배터리 기업 가운데 유일하게 DSX 레디의 BESS와

트너로 선정됐다. 전 세계에서는 3개 기업 이름이 올랐다.

승인 제품은 고용량 리튬인산철(LFP) 배터리를 적용한 ‘JF2 AC 링크(Link)’다. AI 서버의 전력 사용량 변화에 맞춰 배터리 충·방전을 조절해 전력 부하를 완화하고, 외부 전력 공급이 불안정한 상황에서도 데이터센터의 안정적인 운영을 지원한다. 모듈형 설계를 적용해 데이터센터 규모와 전력 수요에 따라 설비를 확장할 수 있는 것도 특징이다.

LG에너지솔루션은 북미 5개 ESS 생산거점을 기반으로 현지 수요에 대응한다. 올해 말까지 북미 ESS 생산능력을 50기가와트시(GWh) 이상으로 확대하고, 미국 ESS시스템통합(SI)법인 버테크를 통해 설계부터 설치·운영·유지보수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차현정 기자 hyeon@



metro

## 현대차그룹, ‘아틀라스’ 상용화 속도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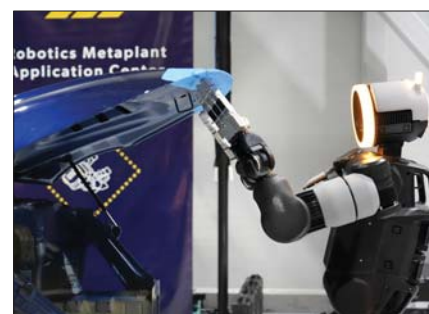
(휴머노이드 로봇)

### ‘로보틱스 메타플랜트 응용센터’ 운영

현대자동차그룹이 휴머노이드로봇 ‘아틀라스’의 생산과 자동차 제조 현장 투입을 위한 상용화 작업에 속도를 낸다. 미국 조지아주 현대차그룹 메타플랜트 아메리카(HMGMA)에 로봇 학습·검증 거점을 마련한 데 이어 2028년부터 현장 배치를 본격화하고 연간 3만대 생산체제를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보스턴다이나믹스는 21일(현지시간) HMGMA에 ‘로보틱스 메타플랜트 응용센터(RMAC)’를 개소하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고 22일 밝혔다. RMAC은 아틀라스가 실제 자동차 생산환경에서 작업을 학습하고 성능과 안전성을 검증하는 테스트베드다. 현재 물류 작업 준비와 자동차 부품 조립 순서에 맞춰 배치하는 서열화 작업 등을 학습하고 있다.

현대차그룹은 앞서 올해 초 CES 2026에서 아틀라스를 2028년부터 HMGMA에



보스턴다이나믹스 아틀라스가 로보틱스 메타플랜트 응용센터(RMAC)에서 자동차 제조 작업을 학습하고 있다.

투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2028년까지 연간 3만대 규모의 로봇 생산체제 구축과 함께 현대차·기아 글로벌 사업장에 아틀라스를 순차적으로 배치할 예정이다.

RMAC도 확대 운영한다. 지난 6월 시범 운영을 시작한 RMAC은 올해 말까지 약 10배 규모로 확장되고, 2027년에는 HMGMA 부지 내 별도 시설로 확대될 방침이다.

/양성운 기자 ysw@



metro

시민과 소통하며  
함께 뛰는  
고양특례시의회

www.goyangcouncil.go.kr

**고양특례시의회**  
Goyang Special City Council